

여고생의 착용교복에 대한 디자인 평가 및 교복 만족도 -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

한민희·이은숙**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The Evaluation for the Design & Satisfaction of the School Uniform in Girls' High School - Focusing on Ulsan -

Mi-Hee Han · Eun-Sook Lee**

Dept. of Hom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2014. 9. 11. 접수; 2014. 10. 30. 수정; 2014. 11. 3.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analyzing the evaluation for the design and satisfaction/unsatisfaction of the autumn and winter school uniform targeting junior students and sophomore students at academic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 located in Ulsan, Korea. For this research, SPSS 12.0 was used to measure the frequency and the t-test analysis of 396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autumn-winter school uniforms was heat-retainment. It w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phere and grade. They also answered body shape faults and figure emphasis as the most distressed factors. In the design of the school uniform, It was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phere and grade. They considered the silhouette when they worn the school uniform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primary factors in purchasing a uniform appeared to be price. Repair experiences after purchasing a school uniform found to count more among students. Examination about transformed parts of uniforms for the students with experiences in uniform modification showed that many students in the academic sphere modified length and width of upper wears, and length of skirt, while many students in the vocational sphere modified waist and hip. Junior grade than sophomore grade appeared to have modified in all parts.

Key Words: School uniform design(교복디자인), Satisfaction/Unsatisfaction for school uniform (교복 만족/불만족), School uniform transform(교복 변형)

I. 서론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은 그들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며 그들만의 하위문화 트렌드를 만

들어내기도 한다. 이 시기는 결속력이 강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욕구나 감정이 이입되어 나타나는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교복이 학교 교육에서 필수적인 아이টে็ม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상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Lee

Tel. +82-52-259-2843, Fax. +82-52-259-2843

E-mail : eunsook@ulsan.ac.kr

교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일상에서 교복의 착용시간이 자기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외출복의 착용시간보다 많음으로써 교복을 통한 자기표현을 위하여 교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특히 디자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일상복의 트렌드에 맞지 않을 경우 교복을 변형하는 경향이 높다. 아울러 브랜드 교복업체의 스타마케팅이 교복패션이라는 트렌드를 형성하여 교복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교복디자인의 변형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복가격의 불안정화, 가계경제부담, 교복 불만족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근래에 교복착용 대상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교복표준디자인 제시를 위한 지역사회의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어 이전의 교복디자인에 대한 불만요소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형 브랜드사의 대량 예측생산 및 마케팅으로 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재고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주관 구매로 수요에 맞는 주문 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체가 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하였다(교육부, 2014.). 2005년 이후 전국 약 5000여개 중·고등학교의 96.5%정도의 교복착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브랜드사와 중소기업체의 공존공생을 위한 기초 제도를 마련하여 수행함으로써 교복 시장의 안정화는 가져올 수 있으나 디자인 측면에서는 불만의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학생 대다수가 교복 디자인이 구식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교복 변형을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채령과 김용숙(2007), 임주희(2004), 이소은(2001)은 각 지역을 대상으로 교복디자인, 선호도, 교복디자인 만족도를, 김세희(2003)는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 교복만족도와 교복이미지를, Xu(2012)은 중국 북경(北京)과 광주(廣州) 두 지역의 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 디자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복 만족도, 교복 수선경험 및 이유, 개선점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부터 지역과 국가에 관계없이 교복착용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울산 지역 교복 착용 학생들 역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 교복표준디자인 제시를 위하여 학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목적을 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울산지역 소재 인문계·실업계에 재학 중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추동용 교복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즉 계열별, 학년별 교복디자인의 중요 요소, 교복착용 후 불만족도, 교복변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여고생들의 교복디자인 기획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교복표준화 제시를 위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복시장의 현황

1982년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자율화 발표는 청소년 의생활의 전환점을 맞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경자, 1983). 이는 당시 청소년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취지를 갖고 있어 그들의 취향을 살린 활동적이고 개성있는 통학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청소년들의 의생활 문화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부 무분별한 과소비 생활, 빈부격차에서 오는 학생간의 위화감,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학생신분과 동떨어진 기성 패션 모방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전체 97%에 해당되는 학교가 이전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모습과는 달리 학교재량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반영한 교복으로 발전되었다. 교복착용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교복시장은 대기업에서부터 영세업체에 이르는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대기업의 브랜드 완제품 형태



<그림 1> 아이비클럽 교복광고
(출처: <http://blog.daum.net>)



<그림 2> 스마트 교복광고
(출처: <http://minihp.cyworld.com>)



<그림 3>프로보노 교복광고
(출처: <http://inewspeople.co.kr>)

의 교복시장이 형성되면서 브랜드 업체가 교복 디자인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변화되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업체 주도형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복변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 교복 브랜드사들은 실질적인 소비자인 중·고등학생들의 코드에 전적으로 맞추게 되면서 최고 인기 아이돌그룹들을 중심으로 스타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브랜드 업체는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아이비클럽의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그림 1>, 스마트교복의 “라인이 살아있다” <그림 2>와 같은 광고 카피를 내세워 교복디자인을 강조하거나 인기스타<그림 3>를 내세운 광고를 함으로써 교복의 유행화, 교복의 기성화를 주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복패션이란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교복디자인의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즉, 이전의 교복이 소속감이나 통제성을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최근의 교복은 ‘젊음과 가능성의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교복패션화를 이끄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한국일보, 2006). 따라서 이미지 문화에 민감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소속감이나 통제성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미적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복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는 시장방향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교복디자인 만족도/불만족도

만족이란 소비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불만족이란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감정적 반응은 의복을 구매한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감정이다(김혜정, 2007). 청소년기는 의복이나 외모를 자신을 적응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큰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다. 이 시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의 감정이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이 주는 좋은 느낌이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애란, 김양진, 1996).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껴질 때는 자신감이 생겨 모든 일에 참여하고 싶어지며, 자신의 옷과 용모에 대해 더욱 의식적이 되는 반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불안해지고 소외감마저 느끼게 되어 더욱 우울한 기분이 된다고 하였다(Ryan, 1966).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동안 착용하고 있는 의복인 교복의 디자인에 대해 만족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감과 원활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복디자인 만족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지민(2007), 김혜정(2007), 임주희(2004)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화순(2001), 이명희(2001)의 연구에서도 교복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이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이 촌스럽고 유행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수선을 한다는 의견제시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디자인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자인이 구식이다’라는

심미적 측면에서의 불만족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복디자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 지역 여고생의 계열별·학년별 교복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살펴보고 교복의 불만족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교복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교복시장 현황과 교복디자인 불만족도를 살펴 본 이론적 연구와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본 조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복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문항은 이지민(2007) 4문항, 조은정(2003) 4문항을 수정·보완한 총 8문항과 본 연구자가 제시한 5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마음에 든다’에 1점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에 5점을 주는 5점 Likert 척도로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이라는 교육목표가 다르거나 학년 차에 따라 교복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계열과 학년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12학년 여고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배포한 설문지 440부 중 39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인문계 56.6%(224명), 실업계 43.3%(172명)로 나타났으며, 1학년 43.2%(171명), 2학년 56.8%(225명)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한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계열별·학년별에 따른 교복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교복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계열별과 학년별 교복디자인의 중요 항목, 착용 후 불만족과 이유, 교복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계열별, 학년별 교복디자인의 중요 항목

계열별·학년별 교복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 교복디자인의 중요 요소, 교복구입 시 중요 요소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복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

계열별·학년별 교복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즉, 계열간($\chi^2=16.207$, $p<.01$)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문계와 실업계는 보온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고, 심미성에서는 인문계($n=70$)가 실업계($n=2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임으로써 실업계에 비해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chi^2=12.255$, $p<.05$)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은 보온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고 2학년($n=22$)이 1학년($n=7$)에 비해 견고성을 중요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학년 연구대상자들은 이미 교복을 1년 동안 착용한 경험이 있고 착용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복의 낡음과 봉제 상태를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계열과 학년에 상관없이 추동용 교복에 있어서 보온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 결과는 이지민(2007), 임주희(2004)의 연구에서 교복소재의 보온성이 떨어진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고생들의 활동성과 계절을 고려

<표 1> 교복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 분석결과

n=396

구 분		계 열		전 체	학 년		전 체
		인문계	실업계		1학년	2학년	
유행성	빈도(기대빈도)	7(7.9)	7(6.1)	14(14.0)	9(6.0)	5(8.0)	14(14.0)
	전 체%	1.8	1.8	3.5	2.3	1.3	3.5
견고성	빈도(기대빈도)	14(16.4)	15(12.6)	29(29.0)	7(12.5)	22(16.5)	29(29.0)
	전 체%	3.5	3.8	7.3	1.8	5.6	7.3
보온성	빈도(기대빈도)	107(118.2)	102(90.8)	209(209.0)	82(90.3)	127(118.8)	209(209.0)
	전 체%	27.0	25.8	52.8	20.7	32.1	52.8
단정함	빈도(기대빈도)	23(24.9)	21(19.1)	44(44.0)	21(19.0)	23(25.0)	44(44.0)
	전 체%	5.8	5.3	11.1	5.3	5.8	11.1
아름다움	빈도(기대빈도)	70(53.2)	24(40.8)	94(94.0)	48(40.6)	46(53.4)	94(94.0)
	전 체%	17.7	6.1	23.7	12.1	11.6	23.7
촉감	빈도(기대빈도)	3(3.4)	3(2.6)	6(6.0)	4(2.6)	2(3.4)	6(6.0)
	전 체%	0.8	0.8	1.5	1.0	0.5	1.5
전 체	빈도(기대빈도)	224(224.0)	172(172.0)	396(396.0)	171(171.0)	225(225.0)	396(396.0)
	전 체%	56.6	43.4	100.0	43.2	56.8	100.0
χ^2 값		16.207**			12.255*		

*p <.05 , **p <.01

한 경량감과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 소재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 교복착용 시 고려하는 요소

계열별·학년별 교복착용 시 고려하는 요소를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계열과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계열 간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는 교복을 착용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체형결점(n=205)과 몸매강조(n=130)를, 학년 간에서 1학년은 체형결점(n=86), 2학년은 몸매강조(n=67)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여학생들이 체형변화를 겪게 되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교복이 자신들의 체형결점을 얼마만큼 보완해주며 교복을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실루엣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고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복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3) 교복디자인의 중요 요소

계열별·학년별 교복디자인의 중요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복디자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계열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문계와 실업계는 교복착용 시 실루엣, 색상, 디테일, 소재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년 간($\chi^2=8.835, p<.05$)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실루엣, 색상, 디테일, 소재 순으로, 2학년은 실루엣, 색상, 소재, 디테일 순으로 나타났다. 이

<표 2> 교복착용 시 고려하는 요소 분석결과

n=396

구 분		계 열		전 체	학 년		전 체
		인문계	실업계		1학년	2학년	
체형결점	빈도(기대빈도)	108(116.0)	97(89.0)	205(205.0)	86(88.5)	17(21.6)	205(205.0)
	전 체%	27.3	24.5	51.8	21.7	4.3	51.8
더러움	빈도(기대빈도)	31(28.3)	19(21.7)	50(50.0)	17(21.6)	33(28.4)	50(50.0)
	전 체%	7.8	4.8	12.6	4.3	8.3	12.6
얼굴강조	빈도(기대빈도)	8(5.7)	2(4.3)	10(10.0)	4(4.3)	6(5.7)	10(10.0)
	전 체%	2.0	0.5	2.5	1.0	1.5	2.5
몸매강조	빈도(기대빈도)	76(73.5)	54(56.5)	130(130.0)	63(56.1)	67(73.9)	130(130.0)
	전 체%	19.2	13.6	32.8	15.9	16.9	32.8
단정함	빈도(기대빈도)	1(0.6)	0(0.4)	1(1.0)	1(0.4)	0(0.6)	1(1.0)
	전 체%	0.3	0.0	0.3	0.3	0.0	0.3
전 체	빈도(기대빈도)	224(224.0)	172(172.0)	396(396.0)	171(171.0)	225(225.0)	396(396.0)
	전 체%	56.6	43.4	100.0	43.2	56.8	100.0
χ^2 값		5.052		4.679			

*p <.05 , **p <.01

<표 3> 교복디자인의 중요 요소 분석결과

n=396

구 분		계 열		전 체	학 년		전 체
		인문계	실업계		1학년	2학년	
교복착용시 실루엣	빈도(기대빈도)	132(132.4)	102(101.6)	234(234.0)	104(101.0)	130(133.0)	234(234.0)
	전 체%	33.3	25.8	59.1	26.3	32.8	59.1
색상	빈도(기대빈도)	48(40.7)	24(31.3)	72(72.0)	34(31.1)	38(40.9)	72(72.0)
	전 체%	12.1	6.1	18.2	8.6	9.6	18.2
소재	빈도(기대빈도)	19(23.2)	22(17.8)	41(41.0)	9(17.7)	32(23.3)	41(41.0)
	전 체%	4.8	5.6	10.4	2.3	8.1	10.4
디테일	빈도(기대빈도)	25(27.7)	24(21.3)	49(49.0)	24(21.2)	25(27.8)	49(49.0)
	전 체%	6.3	6.1	12.4	6.1	6.3	12.4
전 체	빈도(기대빈도)	224(224.0)	172(172.0)	396(396.0)	171(171.0)	225(225.0)	396(396.0)
	전 체%	56.6	43.4	100.0	43.2	56.8	100.0
χ^2 값		5.350		8.835*			

*p <.05

<표 4> 교복구입 시 중요 요소 분석결과

n=396

구 분		계 열		전 체	학 년		전 체
		인문계	실업계		1학년	2학년	
바느질	빈도(기대빈도)	11(13.0)	12(10.0)	23(23.0)	8(9.9)	15(13.1)	23(23.0)
	전 체%	2.8	3.0	5.8	2.0	3.8	5.8
브랜드	빈도(기대빈도)	31(23.8)	11(18.2)	42(42.0)	18(18.1)	24(23.9)	42(42.0)
	전 체%	7.8	2.8	10.6	4.5	6.1	10.6
가격	빈도(기대빈도)	106(98.4)	68(75.6)	74(174.0)	77(75.1)	97(98.9)	174(174.0)
	전 체%	26.8	17.2	43.9	19.4	24.5	43.9
소재	빈도(기대빈도)	46(45.8)	35(35.2)	81(81.0)	39(35.0)	42(46.0)	81(81.0)
	전 체%	11.6	8.8	20.5	9.8	10.6	20.5
세탁성	빈도(기대빈도)	9(12.4)	13(9.6)	22(22.0)	10(9.5)	12(12.5)	22(22.0)
	전 체%	2.3	3.3	5.6	2.5	3.0	5.6
구입 후 A/S	빈도(기대빈도)	21(30.5)	33(23.5)	54(54.0)	19(23.3)	35(30.7)	54(54.0)
	전 체%	5.3	8.3	13.6	4.8	8.8	13.6
전 체	빈도(기대빈도)	224(224.0)	172(172.0)	396(396.0)	171(171.0)	225(225.0)	396(396.0)
	전 체%	56.6	43.4	100.0	43.2	56.8	100.0
χ^2 값		16.205**			3.012		

**p <.01

상의 결과를 통해 계열과 학년에 상관없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실루엣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외형적 표현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재에서 2학년(n=32)이 1학년(n=9)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교복이 갖추어야 할 요소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2학년이 1학년보다 교복을 1년 더 착용한 상황이라 교복소재의 표면에 보풀이 일어나고 세탁에 의한 소재의 변형, 보온성 저하 등을 예상하여 소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교복구입 시 중요 요소

계열별·학년별 교복구입 시 중요 요소를 살펴 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계열 간($\chi^2=16.205$, $p<.01$)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는 가격, 소재, 브랜드, 구입 후 A/S, 바느질, 세탁성 순으로, 실업계는 가격, 소재, 구입 후 A/S, 바느질,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교복구입 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계열과 학년에 상관없이 가격, 다음으로 소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주희(2004), 김화순(2001)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는 사회 경기침체로 인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교복구입 시 가격에서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박효은과

〈표 5〉 추동용 교복구입 후 만족도·불만족도 분석결과

n=396

구 분		계 열		전 체	학 년		전 체
		인문계	실업계		1학년	2학년	
매우 만족	빈도(기대빈도)	3(4.0)	4(3.0)	7(7.0)	4(3.0)	3(4.0)	7(7.0)
	전 체%	0.8	1.0	1.8	1.0	0.8	1.8
만족	빈도(기대빈도)	35(33.4)	24(25.6)	59(59.0)	31(25.5)	28(33.5)	59(59.0)
	전 체%	8.8	6.1	14.9	7.8	7.1	14.9
보통	빈도(기대빈도)	94(104.6)	91(80.4)	185(185.0)	70(79.9)	115(105.1)	185(185.0)
	전 체%	23.7	23.0	46.7	17.7	29.0	46.7
불만족	빈도(기대빈도)	72(64.5)	42(49.5)	114(114.0)	54(49.2)	60(64.8)	114(114.0)
	전 체%	18.2	10.6	28.8	13.6	15.2	28.8
매우 불만족	빈도(기대빈도)	20(17.5)	11(13.5)	31(31.0)	12(13.4)	19(17.6)	31(31.0)
	전 체%	5.0	2.8	7.8	3.0	4.8	7.8
전 체	빈도(기대빈도)	224(224.0)	172(172.0)	396(396.0)	171(171.0)	225(225.0)	396(396.0)
	전 체%	56.6	43.4	100.0	43.2	56.8	100.0
χ^2 값		6.026		5.884			

조현주(2007)의 소재 불만족이 68.0%로 ‘가격에 비해 소재의 질이 좋지 않다’, ‘보풀이 많이 생긴다’, ‘땀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등을 불만족 원인으로 들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생들은 교복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어 교복생산업체에서는 경제적인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교복구입 후 만족도·불만족도

교복구입 후 만족도·불만족도, 교복구입 후 만족·불만족 이유, 교복구입 후 우선순위 및 변형부위, 추동용 교복수선 이유를 계열별·학년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복구입 후 불·만족도

계열별·학년별 추동용 교복구입 후 불·만족도

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교복구입 후 불·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계열과 학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열과 학년에 상관없이 보통(n=185), 불만족(n=114), 만족(n=59), 매우 불만족(n=31), 매우 만족(n=7) 순으로 나타나 여고생들은 교복구입 후 대체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지민(2007), 임주희(2004), 김경순(1993)의 연구에서 교복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복구입 후 불만족 이유

<표 5>에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체크한 145명을 대상으로 계열별·학년별 교복구입 후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한 결과, 계열 간($\chi^2=21.087$, $p<.01$)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는 디자인, 색상과

<표 6> 교복구입 후 만족·불만족 이유 분석결과

구 분		계 열		전 체	학 년		전 체	
		인문계	실업계		1학년	2학년		
매우 만족· 만족	디자인	빈도(기대빈도)	13(15.3)	14(11.7)	27(27.0)	16(11.7)	11(15.3)	27(27.0)
		전 체%	3.3	3.5	6.8	4.0	2.8	6.8
	세탁성	빈도(기대빈도)	4(2.8)	1(2.2)	5(5.0)	2(2.2)	3(2.8)	5(5.0)
		전 체%	1.0	0.3	1.3	0.5	0.8	1.3
	품질	빈도(기대빈도)	7(7.9)	7(6.1)	14(14.0)	5(6.0)	9(8.0)	14(14.0)
		전 체%	1.8	1.8	3.5	1.3	2.3	3.5
	활동용이	빈도(기대빈도)	8(6.8)	4(5.2)	12(12.0)	8(5.2)	4(6.8)	12(12.0)
		전 체%	2.0	1.0	3.0	2.0	1.0	3.0
	색상	빈도(기대빈도)	3(2.3)	1(1.7)	4(4.0)	2(1.7)	2(2.3)	4(4.0)
		전 체%	0.8	0.3	1.0	0.5	0.5	1.0
	유행성	빈도(기대빈도)	1(1.1)	1(0.9)	2(2.0)	1(0.9)	1(1.1)	2(2.0)
		전 체%	0.3	0.3	0.5	0.3	0.3	0.5
	가격	빈도(기대빈도)	2(1.1)	0(0.9)	2(2.0)	1(0.9)	1(1.1)	2(2.0)
		전 체%	0.5	0.0	0.5	0.3	0.3	0.5
	전체	빈도(기대빈도)	38(38.0)	28(28.0)	66(66.0)	35(35.0)	31(31.0)	66(66.0)
		전 체%	56.6	43.4	100.0	43.2	56.8	100.0
	χ^2 값		4770			6.554		
	매우 불만족· 불만족	디자인	빈도(기대빈도)	40(32.2)	17(24.8)	57(57.0)	23(24.6)	34(32.4)
전 체%			10.1	4.3	14.4	5.8	8.6	14.4
세탁성		빈도(기대빈도)	6(6.2)	5(4.8)	11(11.0)	4(4.8)	7(6.3)	11(11.0)
		전 체%	1.5	1.3	2.8	1.0	1.8	2.8
품질저하		빈도(기대빈도)	16(20.4)	20(15.6)	36(36.0)	15(15.5)	21(20.5)	36(36.0)
		전 체%	4.0	5.1	9.1	3.8	5.3	9.1
활동불편		빈도(기대빈도)	10(9.6)	7(7.4)	17(17.0)	11(7.3)	6(9.7)	17(17.0)
		전 체%	2.5	1.8	4.3	2.8	1.5	4.3
색상		빈도(기대빈도)	16(9.1)	0(6.9)	16(16.0)	9(6.9)	7(9.1)	16(16.0)
		전 체%	4.0	0.0	4.0	2.3	1.8	4.0
유행성		빈도(기대빈도)	1(1.7)	2(1.3)	3(3.0)	0(1.3)	3(1.7)	3(3.0)
		전 체%	0.3	0.5	0.8	0.0	0.8	0.8
서비스 불만족		빈도(기대빈도)	3(2.8)	2(2.2)	5(5.0)	4(2.2)	1(2.8)	5(5.0)
		전 체%	0.8	0.5	1.3	1.0	0.3	1.3
전체		빈도(기대빈도)	92(92.0)	53(53.0)	145(145.0)	66(66.0)	79(79.0)	145(145.0)
		전 체%	56.6	43.4	100.0	43.2	56.8	100.0
χ^2 값		21.087**			9.981			

**p<.01 (매우 만족·만족 n=66, 매우 불만족·불만족 n=145)

〈표 7〉 교복 변형부위 분석결과

구 분		계 열		전 체	학 년		전 체
		인문계	실업계		1학년	2학년	
상의 품	빈도(기대빈도)	78(81.5)	66(62.5)	144(144.0)	50(62.2)	94(81.8)	144(144.0)
	전 체%	19.7	16.7	36.4	12.6	23.7	36.4
χ^2 값		0.530			6.600*		
상의 길이	빈도(기대빈도)	52(54.9)	45(42.1)	97(97.0)	27(41.9)	70(55.1)	97(97.0)
	전 체%	13.1	11.4	24.5	6.8	17.7	24.5
χ^2 값		0.457			12.332***		
허리 둘레 · 영덩이 둘레	빈도(기대빈도)	54(63.9)	59(49.1)	113(113.0)	37(48.8)	76(64.2)	113(113.0)
	전 체%	13.6	14.9	28.5	9.3	19.2	28.5
χ^2 값		4.959*			7.022**		
스커트 길이	빈도(기대빈도)	128(129.5)	101(99.5)	229(229.0)	100(98.9)	129(130.1)	229(229.0)
	전 체%	32.3	25.5	57.8	25.3	32.6	57.8
χ^2 값		0.099			0.052		

*p <.05 , **p <.01 , ***p <.001 (복수응답)

품질저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실업계는 품질저하, 디자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디자인, 품질저하 등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김화순(2001)의 연구에서 불만요인으로 ‘교복디자인’을, 임주희(2004)의 연구에서도 ‘활동하기 불편하므로’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각각 26.8%, 26.5%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을 단순히 유니폼이라는 의미를 넘어 하루의 절반을 착용하고 있는 하나의 의복으로 인식하여 디자인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외모와 몸치장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들이 심미적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교복업체는 여고생들의 이러한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자인 기획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 필요가 있다.

3) 교복구입 후 변형부위

교복구입 후 수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 교복변형 부위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계열별·학년별 교복변형 부위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교복 변형부위를 분석한 결과, 상의 품과 길이에서는 계열 간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 간($\chi^2=6.600$, $p<.05$, $\chi^2=12.332$, $p<.001$)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상의 품과 길이를 더 많이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영덩이둘레에서 계열 간($\chi^2=4.959$, $p<.05$)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변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chi^2=7.022$, $p<.01$)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2학년이 1학년보다 변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길이는 계열과 학년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표 8> 추동용 교복수선 이유 분석결과

n=396

구 분		계 열		전 체	학 년		전 체
		인문계	실업계		1학년	2학년	
유행과 동떨어짐	빈도(기대빈도)	54(43.6)	23(33.4)	77(77.0)	43(33.3)	34(43.8)	77(77.0)
	전 체%	13.6	5.8	19.4	10.9	8.6	19.4
체형결점 보완	빈도(기대빈도)	64(82.0)	81(63.0)	145(145.0)	49(62.6)	96(82.4)	145(145.0)
	전 체%	16.2	20.5	36.6	12.4	24.2	36.6
친구권유	빈도(기대빈도)	9(11.3)	11(8.7)	20(20.0)	7(8.6)	13(11.4)	20(20.0)
	전 체%	2.3	2.8	5.1	1.8	3.3	5.1
활동불편	빈도(기대빈도)	40(40.7)	32(31.3)	72(72.0)	31(31.1)	41(40.9)	72(72.0)
	전 체%	10.1	8.1	18.2	7.8	10.4	18.2
수선안함	빈도(기대빈도)	57(46.4)	25(35.6)	82(82.0)	41(35.4)	41(46.6)	82(82.0)
	전 체%	14.4	6.3	20.7	10.4	10.4	20.7
전 체	빈도(기대빈도)	224(224.0)	172(172.0)	396(396.0)	171(171.0)	225(225.0)	396(396.0)
	전 체%	56.6	43.4	100.0	43.2	56.8	100.0
χ^2 값		21.594***			12.341*		

*p<.05 , ***p<.001

를 통해 인문계는 상의품, 상의길이, 스커트길이를, 실업계는 허리둘레·영덩이둘레를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학년은 1학년보다 상의품, 상의길이, 허리둘레·영덩이둘레, 스커트길이의 모든 부위에서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상의품의 변형비율이 높게 나타나 김세희(2003), 박효은과 조현주(2007), 정혜원과 정인순(2005)의 연구에서 상의품과 상의길이의 변형비율이 높게 나타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성패션의 유행스타일이 교복의 품과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고생들은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는 형태의 교복으로 변형시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복디자인 시 당시의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복제작이 이루어진다면 교복 수선율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교복수선 이유

계열별·학년별 교복수선 이유를 살펴보기 위

해 χ^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수선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제외한 교복수선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열과 학년 간($\chi^2=21.594$, $p<.001$, $\chi^2=12.431$, $p<.05$)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와 1학년은 체형결점보완, 유행과 동떨어짐, 활동불편 등을 이유로, 실업계와 2학년은 체형결점보완, 활동불편, 유행과 동떨어짐 등을 이유로 수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수선이유는 계열과 학년에 상관없이 체형결점보완을 위해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세희(2003)의 연구에서 실용적인 면(몸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체형의 단점보완을 위하여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교복업체는 여고생들의 체형 결점부위에 대한 패턴개발과 아울러 유행스타일을 가미한 교복제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급격한 체형변화를 겪는 시기에 있는 여고생들은 외형적인 요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본인의 체형결점을 보완하고 몸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과 보온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복에 대한 불만족은 디자인과 품질저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고생들의 미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개성이 가미된 교복 디자인 개선과 교복 품질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복구입 후 수선부위는 수선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문계는 상의 품과 길이에 대해, 실업계는 허리·영덩이 둘레에 대한 변형부위로 나타났으며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상의 품, 상의 길이, 허리·영덩이 둘레의 모든 부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복수선 이유는 계열과 학년에 상관없이 체형결점보완을 위해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교복수선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여고생들의 변화하는 체형에 적합한 패턴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세분화된 사이즈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복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바람직한 교복표준디자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교육정책만나기 2014. 07. 25. <http://if.blog.tistory.com/4083?top3>
- 김경순. (1993). *여중생 교복 실태 및 디자인 선호에 따른 교복디자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희. (2003). *여고생의 교복행동에 관한 연구 - 교복이미지와 교복만족도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순. (2001). *여중생의 교복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은. (2001). *남녀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07).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주희. (2004).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디자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은, 조현주. (2007). 대구시 여고생의 교복변형에 대한 태도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2)*, 104-114.
- 전채령, 김용숙. (2007). 고등학생의 교복태도에 따른 교복변형과 패션 액세서리 착용. *한국복식학회지, 57(2)*, 132-142.
- 정혜원, 정인순. (2005).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 평가와 교복변형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179-186.
- 조은정. (2003). *Jean 소재를 이용한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www.inewspeople.co.kr>, 자료검색일 2014. 07. 28.